

며칠 전 여유가 생겨 서점을 찾았다. 어릴 적부터 책을 붙잡고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요즘도 짬이 나면 종종 서점에 들른다. 그 날도 내가 유달리 좋아하는 문학도서를 살펴보러 서점 2층으로 향하려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내 또래의 많은 학생들이 1층 참고서 코너에 몰려 있었다. 중고생의 인파를 겨우 헤집고 2층, 문학도서 코너로 올라갔다. 1층, 참고서 코너에 비해 2층은 매우 한가로웠다. 문학도서에 취미를 가진 어른들과 대학생 몇몇만이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모습에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참고서 외에는 독서를 꺼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참고서에만 묶어둔 것일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참고서나 문제집 보는 것에만 익숙하다. 간혹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이 발표되면 추천도서를 읽어보려고들 하지만 청소년이 읽기에 너무 어려운 도서들이 대부분이라 부담부터 느낀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매번 접하면서 “우리들이 읽고 싶은 책은 따로 있는데..., 우리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책은 따로 있는데...”라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감명 깊게 읽고 괴테의 작품세계에 크게 관심을 가졌었다. 그래서 괴테의 걸작인 《파우스트》 역시 꼭 읽어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파우스트》를 찾아봤다. 하지만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번역된 것들이라 중학생이 읽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았다. 나는 《파우스트》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야 겨우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양면적인 인간 영혼의 타락과 부활을 그린 세계문학을 쉽게 풀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서운했고, 안타까웠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책은 새로운 장르의 책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명작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낸 책이 필요한 것이다. 비단 문학 장르뿐만이 아니다. 사회과학 장르를 살펴봐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여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읽었던 기억이 난다. 어휘부터 내용전개까지 난해한 부분이 많았다. 이 책 또한 성인들을 위한 번역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도 《제3의 물결》 같은 책들은 얼마든지 필요하다. 고대에서 현대,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인류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도사랑 운동본부에서 엮은 《동해의 파수꾼 독도》라는 책은 내가 매우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독도의 역사에 이렇게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한 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칫 어렵고, 딱딱하기 쉬운 과학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들도 많은 것 같다. 아르망 에르스코비치의 《수학 먹는 달팽이》란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적 논리와 개념들을 이야기 형태로 쉽게 풀어 써 수학적 이해와 심층학습에 크게 도움을 줬다.

이상, 청소년을 감히 대표해서 우리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책에 대해서 적어보았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도서 전문필자 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서 청소년이 넓은 세상을 좀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진  
인천 선인고등학교 3학년,  
EBS '청소년 원탁토론' 진행자

## 청소년이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책'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기를